

국민 90% “특권 대물림 교육 심각”

사격세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발표

70% “학벌·대학·고교서열화 해소해야 특권 대물림 해결”

국민 10명 중 9명은 ‘우리나라의 특권 대물림 교육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부모의 직업·출신학교·경제력 등이 자녀의 교육적 성과로 이어지는 현상이 팽배하다고 국민 대부분이 여기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우선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 절반 이상은 ‘덜충분한 해결책’이라고 응답했다. 대입제도 개편은 물론 취업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고교·대학서열화 해소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 응답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격세)은 7일 서울 용산구 사격세 대회의실에 이런 내용을 담은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격세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30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다

조국 법무부장관 딸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제도에 내재된 불공정·특권을 해소하는 교육개혁 추진 의지를 밝히고 정부·여당도 다음 달까지 해당 방안을 발표한다고 하자 교육시민단체 차원에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특권 대물림 교육의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89.8%가 ‘매우 심각하거나 다소 심각하다’고 답했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9.4%,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1.5%에 머물렀다. ‘잘 모름’ 응답은 0.8%다. ‘특권 대물림 교육을 해소하는 게 대입제도 개편만으로 충분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1.8%가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응답은 28.7%였다.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의 찬성·반대 여부는 77.4%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대는 18.3%다.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은 출신학교나 학력을 이유로 채용에서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을 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이상

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또 다른 방안인 대학과 고교의 서열화 해소 여부에 대해서는 각각 70.0% (대 학 서 열 화 해 소),

68.0% (고교서열화 해소)의 응답자가 찬성했다. 반대는 각각 26.0%, 27.7%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대입제도 개편 방안과 함께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도 강구하고



가을비에도 즐거운 현장학습 가을비가 내린 7일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경기전 앞 화단에서 현장학습을 나온 학생들이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고 있다.

파주·김포 모든 돼지 처분에 농가 반발...당국 “불가피한 조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가가 집중적으로 나온 파주, 김포 내 모든 돼지를 수매 또는 살처분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지역 양돈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관내 모든 돼지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도를 낮추겠다는 의도지만, 농가들은 일방적인 조치로 폐업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파주, 김포, 연천 양돈농가 내 예방적 살처분을 제외하고 파주와 김포의 돼지 사육두수는 각각 5만8000두, 1만8000두 정도로

과약된다.

이번 수매는 생체중 90kg 이상의 비육돈이 대상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등은 전량 살처분된다.

이번 조치에 적지 않은 수의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낮은 보상금과 생계비 지원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회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모든 돼지들을 예방적 살처분할 경우 농장들은 재입식 전망조차 어려워 폐업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며 “수매, 예방적 살처분에 따른 보상은 물론 재입식 제한 기간 동안에 일어난 소득 손실 보장대책이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인 만큼 농가가 이해 해달라는 입장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아프

리

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이 경기북부 지역에 집중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인 만큼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 3일 김포에서 13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농가가 나온 이후 나흘째 추가 발생 농장은 없는 상황이지만 6일 포천과, 보령에서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면서 양돈농가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확진 시 인근 농장까지 수만마리의 살처분이 불가피한 축산단지라는 점에서 이날 ‘음성’ 판정이 나오기까지 양돈농가와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이에 남부지역 양돈농가들 사이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를 위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더 광범위한 지역 대상의 예방적 살처분을 바라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간 광주전남 소방·구급대원

성희롱·성폭행 피해 44건 발생

최근 5년간 광주와 전남지역 소방·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나 성폭행 등이 44건이 발생해 46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소방·구급대원에 대한 인권침해 범죄(폭행·추행 등)가 매년 평균 185건씩 발생하고 있다.

이 중 광주는 최근 5년여간 19건에 21명이 성희롱이나 성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건에 1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2015년 4건

에 6명, 2016년 2건에 3명, 2017년 5건에 5명, 2018년 5건에 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는 1건에 1명으로 확인됐다.

전남에서는 25건이 발생해 25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6건에 6명, 2015년 11건에 11명, 2016년 3건에 3명, 2017년 3건에 3명, 2018년 1건에 1명이다. 2019년에도 1건에 1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창일 의원은 “소방대원들의 성희롱과 성폭행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와 강화된 징계 방안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 판결

‘카드빚 질책에 어머니 살해’

20대 여성 징역 17년 확정

채무 문제를 질책하는 모친을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 17년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기소된 이모씨(25)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부천시 집에 불을 질러 모친(당시 55세)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써 빚이 8000만원 상당에 이르자 모친에게 이를 털어달라고 “함께 죽자”며 며칠간 본인을 질책하자 함께 죽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씨는 불을 붙인 직후 연기만 다소 마신 상태에서 집 밖으로 나와 현관문을 닫았고 화상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현관문 입구 쪽에서 발견된 모친은 전신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모친은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웠는데도 이씨가 도움을 요청

하자 2014년부터 2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빚을 대신 갚아줬고 이번에도 딸의 빚을 갚을 돈을 벌기 위해 12시간여동안 식당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피해자의 삶을 돌이켜 보면 사랑하는 자식에 의해 단 하나뿐인 생명을 잃게 된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며 “유리한 정상을 감안해도 반사회적 범행의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의 죄는 평생 징역을 살아도 갚을 수 없다”면서도 “이씨가 남동생 사망에 대한 죄책감과 그로 인한 무절제한 채무부담, 그 채무를 해결하려 인생 밑바닥까지 갔던 시간과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털어놨지만 심한 질책을 받고 정신적으로 무너졌다”고 범행 동기를 고려했다.

이이 “40대 중반 전에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감형하기로 했다. 어머니도 이런 재판부 결정을 허락할 것 같다”고 선고했다.

뉴스1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에요... 자태치로구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지,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거운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태치로구, 자태치로구 주민 인허군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므로,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